

길상사 토요일법담

오고 가는 법담 속에 부처님 가르침 체득



덕현 스님

강의·좌선·법담 한 자리서 불법에 흠뻑 빠져들어 마음챙김 기반으로 다른 이에게 행복줘야 진정 불자

작지만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 길상사 설법전에서는 100여 신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법문을 경청하고 있었다. 하늘에서 햇살이 설법전을 향해 쏟아지는 것 같았다. 창호지를 뚫고 따뜻한이 전해졌다.

서울 길상사(주지 덕현)에서 열리는 토요일법담은 덕현 스님의 강의, 좌선, 휴식, 질의응답 순으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되며 불자들에게 불교의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2월 6일 열린 토요일법담은 <반야심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야심경>은 마음(心)이 핵심입니다. 관(觀)을 통해 세상을 바로 여실히 살펴(조견: 照見)야 일체 고(苦)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유지시키고 관을 할 때는 지속성을 가져야 합니다.

법담을 매운 신도들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귀를 쫓긋하며 각자의 마음에 심(心)을 새겼다.

강의가 끝나고 스님의 지도로 좌선시간이 이어졌다. 결과부좌를 하고 스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의 작용입니다. 마음이 지어낸 '나'라는 것도 내 마음이 일으키는 꿈일 뿐입니다. 알고 보면 그대로가 아름답고 여여한 진리의 세계입니다. 본래의 마음에서 의식이 깨어나 생각을 일으키고 바깥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있다'는

생각은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내 마음이 지어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마음의 출'일 뿐입니다."

잠깐의 휴식시간 후에 불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궁금한 것을 종이에 적어 스님에게 전했다. 첫번째 질문은 '보림(保任)에 대한 질문이다.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지키는 걸까요?"

덕현 스님이 답했다. "성품을 깨닫고 보면 따로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를 무지 않았는데 그렇게 묶인 것처럼 살아서 자유로워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습관은 주제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업'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림은 깨달음 후의 휴식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피에 대한 질문에 스님의 대답이 이어졌다. "무엇이든지 잘 믿고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키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가피력이라는 것이죠. 산중의 스님들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님은 가피와 관련된 실화를 이야기했다.

"어떤 스님이 제주도 남극선원에서 겨울 안거를 할 때입니다. 45일이 지난 어느날 한라산 등반을 했는데, 산을 오르다보니 벌써 해가 누웠듯이 해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평평 내려 앉을 보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스님은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관세음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고 걸음을 옮기다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어떤 방에서 한 거사님이 스님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안거가 끝나고 그 거사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인데 말이죠. 이런 것이 현몽 가피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을 지극하게 섬기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덕현 스님은 "급박한 순간일수록 마음챙김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진정한 편안함과 행복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고 강조했다.

불단의 향로에서 타오르는 향이 대중의 옷에 스미는 것처럼, 스님의 법담에 설법전에 앉은 대중은 흠뻑 젖어 들었다. 대중은 스님의 법담에 부처님 가르침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덕현 스님이 토요일법담을 시작한 이유는?

"불자들이 집에 와서 복·소원을 비는 기복적인 형태의 신행생활과 신도 연령의 노령화에 문제를 느꼈습니다.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음 세대가 불교를 지킬 수 있을까? 하고 염려도 됐지요. 선원과 토굴의 수행생활에 집중하다 인연이 닿아 도심 생활에 오게 됐는데, 이런 문제에 직면하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이 처음 길상사 주지로 와서 신도들의 불교 이해도, 신행을 보고 몇 가지의 문제를 느꼈다고 한다. 신도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우선이

"불교의 미래는 바른 이해부터"

라고 생각한 스님은 불자들의 수준에 맞춘 강의와 교리공부·신행생활에서 오는 의문점을 해소하면서 점차 불교의 진수에 다가갈 수 있도록 법담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필요가 공급을 만듭니다. 우리가 고(苦)를 알아야 구도심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사성제(四聖諦)를 통해 '고의 고탄'이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로 봐야 합니다. 마음챙김을 통해 마음이 제자리로 오면 고의 고탄이 됩니다."

토요일법담에 참여한 불자들이 실제 삶에서 바른 마음습을 생활화하는 것이야말로 부처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스님은 "법담 시간만이라도 불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죠"라며 다시 한 번 밝혔다.

덕현 스님은 '토요일법담'과 더불어 3월부터 길상사 불교대학을 개설해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불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위해 도심에서 수행정진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02)3672-5946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학점은행제) 모집

고등교육법에 의한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

귀의 삼보하움과 2009년 9월 30일 영산재의 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 등재되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은 전통을 이어가는 우수한 기관이라 하였습니다. 불교일용의식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신입 및 수료과정의 학인스님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1시~7시	이기봉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1시~7시	마일운	30
영 산	영산과정	금	오후1시~7시	조인각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1시~7시	한해사	30
불교실기(의식)	시련/대령/관육등	목	오후1시~7시	조인각	재학생졸업생
이 론 I (법패의전승계보)	법패의 전승 계보	화	오후1시~7시	심만춘	30명
이 론 II (영산재행위전승학습)	영산재의 행위전승 학습	화	오후4시~7시	한활안	30명
불교일용의식	불공/시식/예불	수	오후1시~7시	이기봉	30명

편입학 과정

모집학과	교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각 배	각 배	목	오후1~7시	마일운	약간명

학점은행제모집 (2010 학년도) 2010학년도 1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수	요일	모집인원
법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사물실습	조인각	목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활안	화	30

과정별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 응 시 자 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불교학, 음악, 무용)
- 수료 및 졸업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학점은행제 과정**
 - 고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편 입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주민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4부
 -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전형일정

- ①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오만)원
- ② 2010년 1월 25일 ~ 2월 19일

합격자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특 해

1. 재학생 중 4년 과정을 졸업시 종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 함
2.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품수 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자격 부여
3. 4년 과정의 수료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4.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의 공연시 우선 선발을 부여하고 각종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입 학 문 의

전화 02) 392-3234 / 팩스 02)392-3239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